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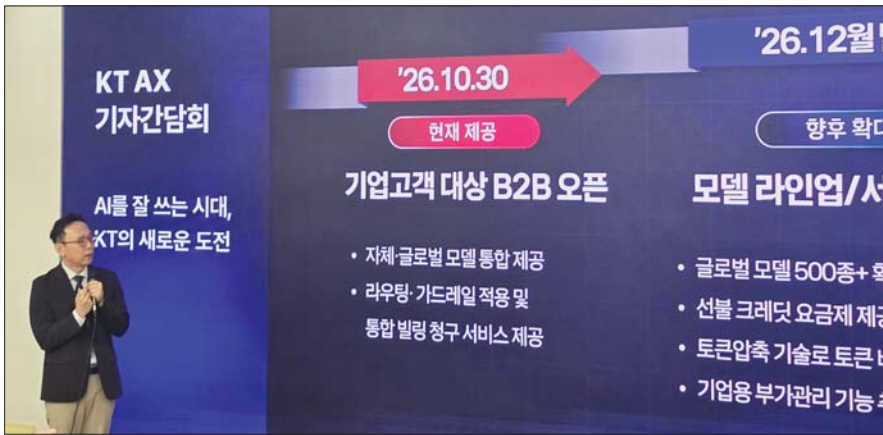
API 하나에 73종 AI모델 연결… AI 요금제로 수익 얻는다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KT ‘토콘팩토리’ 출사표

AX 사업 전략 기자 간담회 열어
토콘 단위 비용 산정 과금체계 마련
오토 모델 라우터로 AI 사용 최적화
토콘 사용량 절감하고 안정성 강화
이달 30일 기업고객 대상 1차 개시
단독 모델 7종, 글로벌 모델 66종

KT가 ‘토콘팩토리’란 사업을 통해 기업
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 지원한다.
이를 위해 통신사업에서 축적한 연결·과
금·보안 역량을 토콘에 적용했다. 여러 AI
모델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고 모델
별 사용량을 토콘 단위로 측정해 비용을
산정하는 과금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KT의 이진형 AX사업본부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열린 ‘KT AX 사업 전략 기자 간담회’에
서 “과거에 음성을 분 단위로, 데이터는
바이트 단위로 요금을 부과했다면, 앞으
로는 토콘 기반으로 과금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KT는 전화번호 하나로 서비
스를 이용하듯, 수많은 AI 모델을 단일 A
PI로 연결해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



2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진형 KT AX사업본부장이 사업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이라고 밝혔다

◆ ‘비용·보안’ 잡는다…AI 활용 통합 관리

토콘팩토리는 하나의 API(응용프로그
램 인터페이스)로 여러 AI 모델을 연결한
통합 관리 플랫폼이다. 최적의 AI 모델 선
택으로 토콘 사용량을 절감하고, 정보 유
출 위험까지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AI 모델 사용 최적화를 위한 핵심 기능
은 ‘오토 모델 라우터’다. KT가 직접 개발
한 모델 라우팅 기술로, 고객이 사전에 설
정한 업무 유형·난이도·비용 등을 고려해
AI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토콘 사용량 절감에 필수적인 ‘입력 프

로프트 압축’ 기능도 지원한다. 질문 입력
시 반복되는 표현을 제거해 입력 토콘 수
를 줄이는 방식이다. 여기에 모델 성능 저
하를 최소화하는 경량화 기술을 더했다.
KT에 따르면, 이같은 모델 최적화 기술을
통해 토콘 사용량을 최대 25% 절감했다.

AI 활용의 안정성도 높였다. KT의 가
드레일 기술을 통해 유해 정보와 특정 금
지어를 차단하고, 국내 모델만 사용할 수
있는 설정 기능도 지원한다. 다만 프롭트
트 비저장이 원칙이지만, 기업이 감사 등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기록을
지원한다. 이밖에 KT가 제공하는 기업 전
용망을 통해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고,

서비스 수준 협약(SLA)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크레딧 등으로 보상해준다.

◆ 이달 30일 1차 출시…AI 모델 73종 제공

‘토콘팩토리’ 서비스는 이달 30일 부터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1차 개시한다. KT
가 개발한 AI를 포함한 단독 모델 7종과
글로벌 모델 66종을 더해 총 73종의 AI 모
델을 제공한다.

핵심 모델 7종은 KT(믿음 3.0), 업스테
이지(슬라-프로-4), 모티프테크놀로지
(모티프-3), 구글(젬마-4-31B), 엔비디아
(네모트론3 울트라) 등이다. 글로벌 모델
66종은 오픈AI(GPT-6-아스트라), 앤트
로픽(클로드 페이브5), 답시크(답시크-V
4) 등 다양하다.

출시 직후 11월부터는 글로벌 AI 모델
라인업 및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KT는
국내 최초로 AI 모델 마켓플레이스 1위
사업자인 오픈라우터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토콘팩토리에 연
결할 수 있는 글로벌 AI 모델 500개 이상
을 확보했다. 이에 더해 기업용 부가 서비
스를 추가 출시한다. 오는 3월에는 개발자
를 위한 개인용 서비스도 선보인다.

이에 앞서 12월부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데이트를 지속할 예정이다. AI 코

딩에 특화된 유라클과 캐스트 AI 등 국내
외 전문기업과 협력을 지속해 ‘KT 토콘팩
토리’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
할 계획이다.

요금제는 스탠다드와 엔터프라이즈 등
2종으로 구성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는
사용량과 기간을 약정하는 기업에 맞춤형
할인 등을 제공하는 특화 요금제다. 결제
방식도 기업별로 협의가 가능하며, 프라이
빗 클라우드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탠다드의 경우 사용량 기반의 과금
방식을 택했다. 다만 결제 방식은 선불제
와 후불제 두 가지 중에 선택 가능하다.
이 밖에 개인 개발자를 위한 구독형 요금
제를 내년 3월 출시에 맞춰 선보인다.

과금 체계는 토콘 사용 기록을 관리하
는 ‘토콘 디테일 레코드(TDR)’를 적용했
다. 기존 통신 서비스 과금 데이터를 참고
해 만든 새로운 요금 체계다. KT는 중개
수수료 중심의 사업 모델과는 차이가 있
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상 글로벌 사업자
들의 중개 수수료율은 5% 안팎인데, KT
는 이를 주된 수익 모델로 삼
고 있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AGI 시대 온다지만… AI 스스로 지능 향상은 ‘아직’

(범용 인공지능)



가트너 ‘AI 재귀적 자기 개선’ 보고서
최상위 AI 기업 ‘AGI 달성’ 선언 전망
실제 AGI 기술 완성 의미는 아냐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범용인
공지능(AGI)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고 있
지만, 정작 AI가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
로 성능을 개선하는 핵심 기술은 아직 검
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I 모델의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 성능이 빠르게 향
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내세우는 기술적
성과와 실제 AGI 구현 수준 사이의 격차
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AI가 연구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

고 성능 향상을 반복할 수 있는지가 AGI
경쟁의 실질적인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7일 AI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
사업체 가트너는 최근 발표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입증되지 않은 AI 재귀적
자기 개선’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7년까
지 상당수 최상위 AI 기업들이 AGI 달성
을 선언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기업들의 선언이 실제 AGI 기
술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
석했다. 특정 영역에서는 인간을 뛰어넘
는 성능을 보이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는 등 기술적 불균
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픈AI는 지난 9월 최상위 AI 모델 ‘G
PT-6 아스트라’를 공개하며 AGI 시대의
도래를 강조했다. 하지만 가트너는 해당

모델이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보여줬을
뿐 AGI 구현을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평
가했다.

핵심은 AI가 뛰어난 답변을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환경에 스스로 적응
하고 기준에 갖추지 못한 능력까지 확보
할 수 있는냐에 있다.

가트너는 AGI를 인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하는 기술
로 정의했다. 특정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
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가트너가 주목한
핵심 기술은 ‘재귀적 자기개선(RSI)’이
다. AI가 자신의 성능을 개선하고, 향상
된 능력을 활용해 다시 더 높은 수준의 A
I를 개발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개념이다.

현재 AI는 코드 작성과 실험 분석, 연구
자료 검토 등 개발 과정의 일부 업무를 자
동화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이러
한 자동화가 AI 자체의 지속적인 성능 향
상으로 연결되고, 다시 연구개발 능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 AI가 인간 연구자의 업
무를 보조하는 것과 연구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고 기술적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의미다.

가트너는 AI가 자체적으로 지능을 끊임
없이 높이는 이른바 ‘지능 폭발’ 가능성
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판단은 당분간
인간 연구자의 역할로 남을 것으로 예상
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CNS CEO 현신균 사장(가운데 왼쪽)과 로이드인증권 글로벌커머셜어드바이저 스튜어트 켈리(가운데 오른쪽) 및 관계자들이 인증 수여식에서 기념 촬영 하고 있다. /LG CNS

LG CNS 준법경영 국제표준 ‘ISO 37301’ 인증 획득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중심 평가
임직원 준법리스크 점검 등 ‘우수’

LG CNS는 준법경영 시스템 국제표준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
혔다.

해당 인증은 기업 및 단체가 법률, 규
제, 사내 규정, 윤리 기준 등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체계적으로 준수·관리할 수 있
도록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이다.

인증 적용 범위는 인공지능(AI), 클라
우드,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개발·유지
보수 등 LG CNS의 주요 사업 영역이다.
이번 심사를 맡은 로이드인증권(LRQA)
은 ▲시스템 및 문서 검토 ▲경영진 및 담
당자 인터뷰 ▲실제 업무 기록 확인 등 엄
격한 과정을 거쳐 각 사업 조직이 운영하
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검증했다.

LG CNS는 전사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를 중심으로 정기 준법 리스크 평가, 교
육, 모니터링, 내부심사 및 경영진 검토
체계를 운영하며 국내외 법규 변화에 선
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해외법인
을 포함한 위원회 운영과 사내 포털을 활
용한 임직원의 자기주도적 준법 리스크
점검 문화가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조민선 기자

‘유플러스원’ 월 이용자 610만명 돌파

LG U+, 앱 출시 1년 만의 성과
순추천지수도 약 1.5배 높아져

LG유플러스는 통합고객플랫폼 ‘유플
러스원’이 앱 출시 1년 만에 월간활성이용
자수(MAU)가 약 610만명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플러스원 앱은 지난 8월 약 609만
6384명으로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최
고치를 돌파했다. 이는 멤버십 앱 ‘당신의
유플러스’ 앱 통합 전인 지난해 10월
(508만명)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 증가의 배경으
로 인공지능(AI) 기반 통신 업무 처리와
콘텐츠·혜택 강화를 꼽았다. 유플러스원
은 통신 업무에 멤버십 혜택과 콘텐츠를
결합한 고객 플랫폼으로, 출시 이후 AI검

색과 콘텐츠 채널과 개인화 기능을 강화
하며 고객 접점을 넓혀왔다. 고객 경험 지
표도 개선돼 고객 신뢰 지표인 순추천지
수(t-NPS)는 출시 직후인 지난해 11월
대비 약 1.5배로 높아졌다.

대표 기능인 ‘AI검색’은 고객이 서비스
나 메뉴의 정확한 명칭을 몰라도 일상적
인 표현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
록 설계됐다. AI검색은 출시 이후 지속적
으로 고도화됐다. 초기에는 긴 설명 위주
의 답변을 제공했지만, 현재는 고객이 원
하는 핵심 정보를 먼저 제시하는 방식으
로 개선됐다. 고

LG유플러스는 최근 AI검색을 실제 업
무 수행까지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로
발전시키고 있다. 유플러스원 AI 에이전
트는 고객의 이용정보를 기반으로 적합한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유플러스원 출시 1주년을 맞아 유플러스원 앱과 콘텐츠·혜택 채널 ‘플러스’를 소개하고 있다.

서비스를 추천하고, 고객 확인을 거쳐 필
요한 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객은 여행 국가와 일정, 데이터 이용 성
향에 맞는 로밍 상품을 추천받아 바로 가
입할 수 있으며, 요금 조회부터 납부까지
하나의 대화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앱 내 하단에 있는
플러스(+) 탭이다. 고객이 통신 업무가 없

을 때도 유플러스원을 찾을 수 있도록 마
련한 콘텐츠·혜택 공간이다. 문화·여행·음
식라이프스타일 등 일상과 관련된 콘텐
츠부터 통신 서비스 이용 정보, 신규 단
말·로밍 관련 소식까지 제공한다.

현재 현대카드 다이브, 룬블랙 등 콘텐
츠 전문 파트너와 협업해 깊이 있는 큐레
이션 콘텐츠도 선보이고 있다. /조민선 기자